

제2기 EAI Academy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

한국외교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양성 프로젝트

일시 | 2021년 8월 10일 ~ 8월 31일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주최 | 동아시아연구원 (EAI)



EAI
EAST ASIA INSTITUTE

EAI Academy

제 1 강

역사 속의 젊은 그들

학력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1980-2012)
조선일보, 중앙일보[<하영선 칼럼> 7년간 연재
한국평화학회 회장(전)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전)
서울대학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빙연구원(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전)

관련연구

Nuclear Proliferation, World Order and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침계, 1989)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 199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을유문화사, 2011)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동아시아연구원, 2012)
사람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한울아카데미, 2019)
한국외교사 바로보기: 전통과 근대 (한울아카데미, 2019)



하영선 이사장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박지원

일찍이 천주교로 개종한 공민정신은
일찍이 박지원은 서민 생활
중의 바를 깨닫는 데 있어
주체, 자율성의 정신이
는 자유의지를 품어

박규수

2011년 6월 27일, 80살의 고령에 이르러
임종간병을 받던 박규수가 자필로 쓴 21세기
의 '일본 노론'은 19세기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를 품었다. 주체적, 자율적



정약용

당시 일찍이 일찍이 서민정신은
의 국제정치의학을 연구한
박지원의 정신은 이 '일본 노론'
의 주체적, 자율적 정신이
는 자유의지를 품어



이중희

박지원의 주체적, 자율적 정신은
19세기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를 품었다. 주체적, 자율적
정신은 19세기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를 품었다. 주체적, 자율적

백사족의 전통은 그들로

18세기 북한파에서 21세기 북한파까지

하영선 저작집



정약용

이인 박지원은 한국 전통문화에서 가장 먼저
의 정신을 깨닫고, 창조하여, 창조한 사람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유길준

2011년 6월 27일, 80살의 고령에 이르러
임종간병을 받던 유길준이 자필로 쓴 21세기
의 '일본 노론'은 19세기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를 품었다. 주체적, 자율적



한석용

한석용은 '일본 노론'에서 가장 먼저
의 정신을 깨닫고, 창조하여, 창조한 사람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한석용



박광과

박광과는 '일본 노론'에서 가장 먼저
의 정신을 깨닫고, 창조하여, 창조한 사람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광과

박지원, 정약용, 박규수, 유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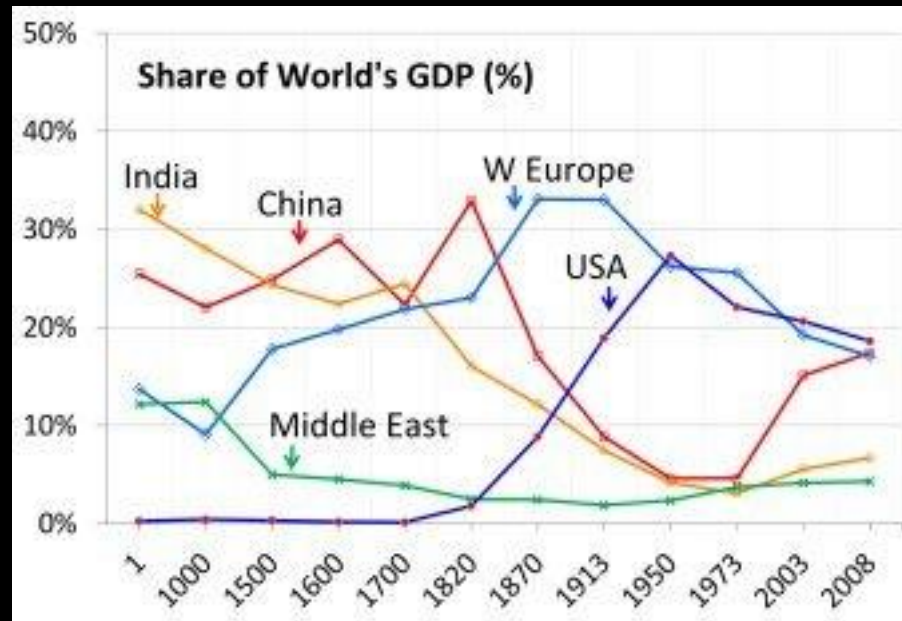
국제정치학과 전쟁·평화 연구의 권위자
서울대 하영선 교수가 새롭게 전하는 한반도 꿈의 역사

◆ 율곡문화사 ◆



19세기 국제질서 형세도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1-2030 AD, Angus Maddison (Oxford University Press,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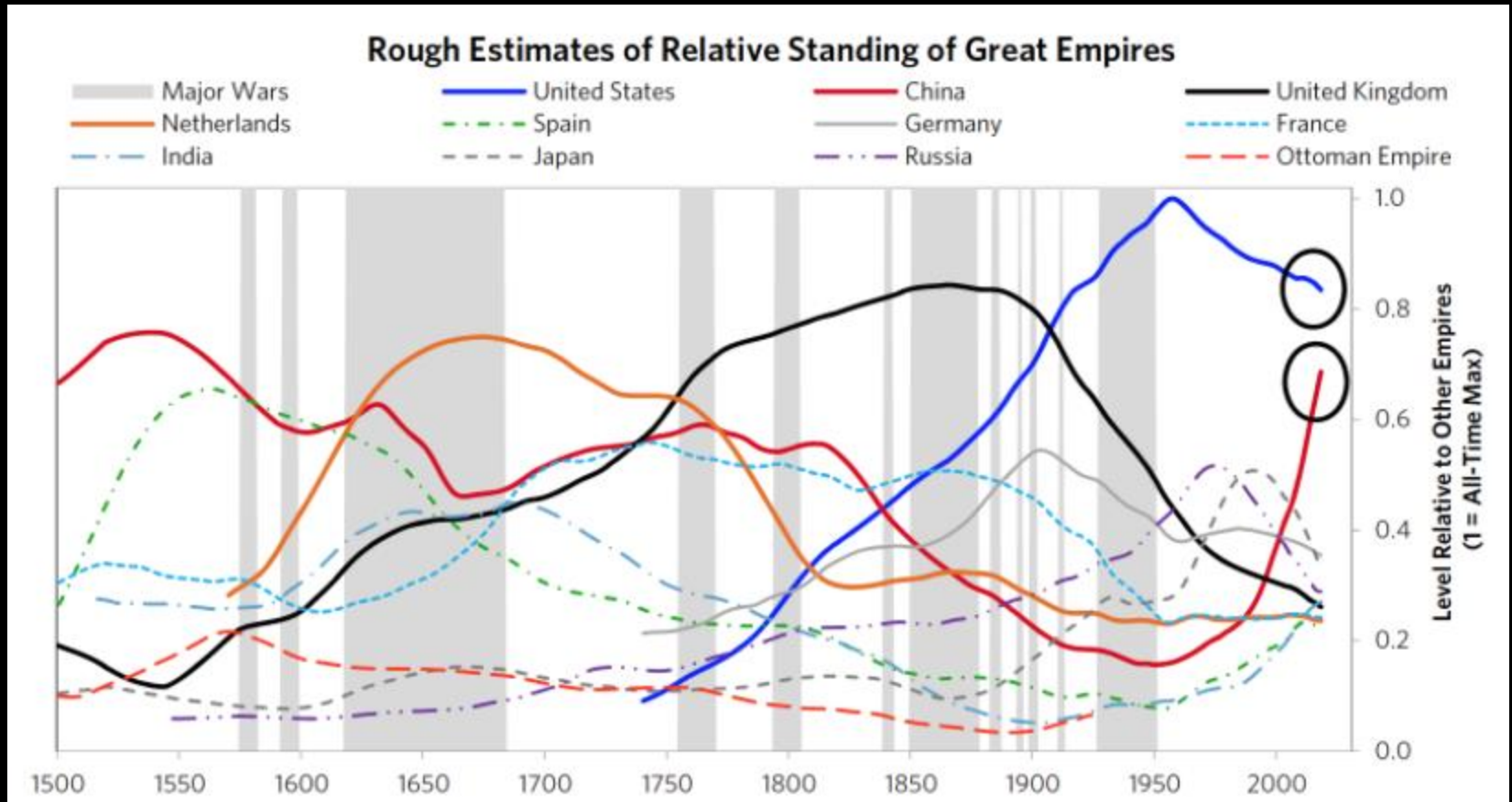


WORLD ORDER: WHERE WE ARE AND WHERE WE'RE 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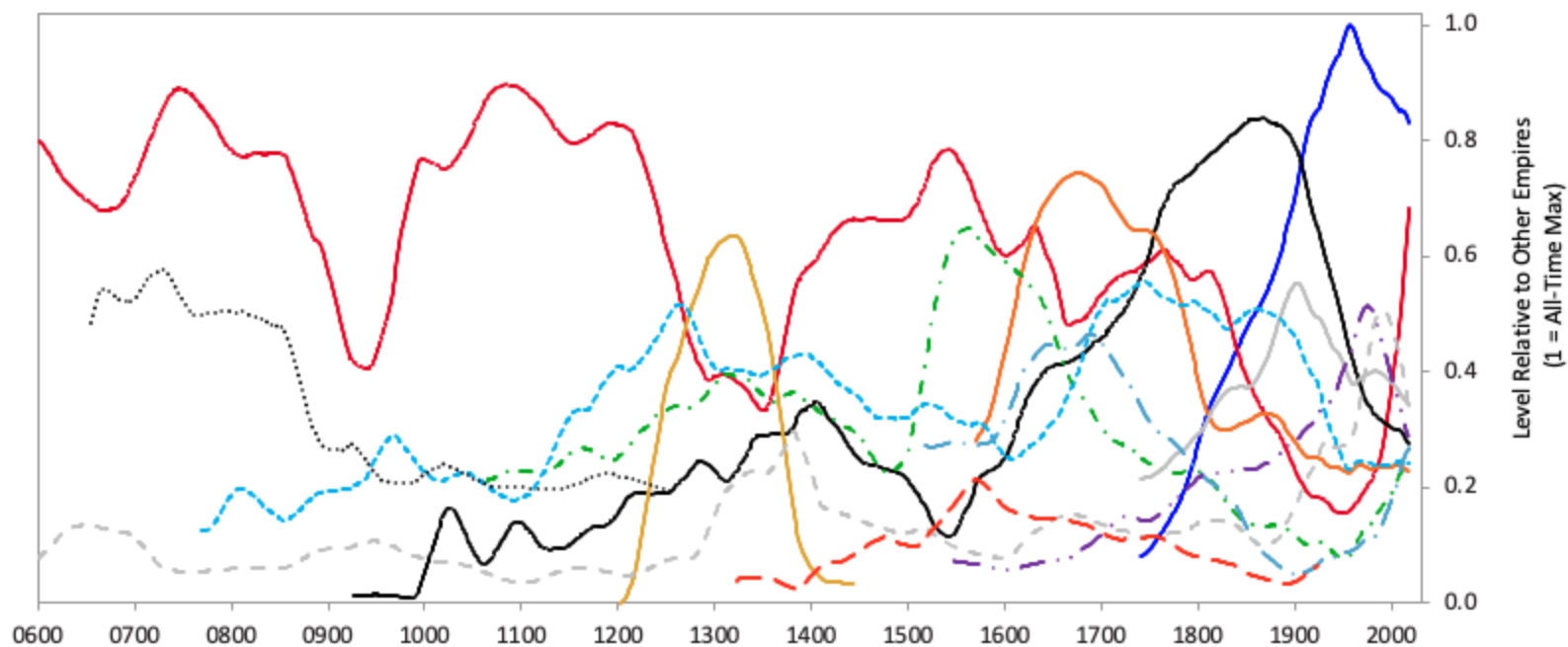
Ray Dalio

<https://www.principles.com/the-changing-world-order/#chapter1>

1) education, 2) competitiveness, 3) technology, 4) economic output, 5) share of world trade, 6) military strength, 7) financial center strength, and 8) reserve currency



Rough Estimates of Relative Standing of Great Empires





박규수의 개화파 사랑방



박규수의 제자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개화파 4인방 일본망명시절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유길준의 삼중 어려움

문명개화: 1883년 견미사절단



	주 인 공	무 대	연 기	제 도
전 통	천하국가	예(禮)	사대자소 [事大字小]	책봉조공
근 대	국민국가	부국강병	자강균세 [自強均勢]	상주외교관 조약체계
복 합	그물망국 가	공치 부/강/문화/생태 지식	경쟁공진 [競爭共進]	복합그물망외교

문명개화론(文明開化論)



-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1887-1889/1895) 14편
- 外國이면 盡善하다하여 自己의 國에는 始何한 事物이든지 不美하다하며 已甚하기에 至하여는 外國의 景況을 稱道하여 自己의 國을 慢侮하는 弊俗도 有하니 此를 開化黨이라 謂하나 此豈 開化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罪人이며 不及한者는 頑固한 性稟으로 事物의 分界가 無하고 外國人이면 夷狄이라하고 外國物이면 無用件이라하고 外國文字를 天主學이라하여 敢히 就近하지 못하며 自己의 身이 天下의 第一인듯 自處하나 甚하기에 至하여는 避居하는 者도 有하니 此를 守舊黨이라 謂하나 此豈 守舊黨이리오 其實은 開化의 讐敵이니... 若其한中에 外國卷烟을 吮하고 胸前에 外國時標를 佩하며 其身이 拚凳이나 交椅에 踞坐하여 外國의 風俗을 閒話하여 其言語를 略解하는者가 豈曰 開化人이리오 此는 開化의 罪人도 아니오 開化의 讐敵도 아니라 개화의 虛風에 吹하여 心中에 主見없이 一箇 開化의 病身이라.
-
- 전통없는 근대를 추구하는 개화의 죄인과, 근대없는 전통을 추구하는 개화의 원수, 전통의 긍정적 측면을 버리고 근대의 부정적 측면만 받아들인 개화의 병신만 존재하고 있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 속에서, 유길준이 당면하고 있었던 최대의 과제는 단순한 서양문명의 소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의 갈등이 아닌 조화를, 더 나아가서 복합화를 당시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

양절체제론(兩截體制論)

-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1887-1889/1895)
제3편 「방국(邦國)의 권리(權利)」

“조공받는국가가 그런즉 여러국가에게 같은 예도를 행하고 조공받치는 나라에게는 독존의 모습을 마음대로 하니 조공하는 국가체제가 조공받는 나라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앞뒤로 나뉘지고 조공받는 국가체제도 조공받치는 국가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앞뒤로 나뉘진다. 조공받는 국가와 조공받치는 국가를 하나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세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 유무만 따지기 때문이다. 강국의 망령된 존중에 대해서는 공법의비난이 있고 약한국가의 수모에 대해서는 공법의 보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가 아닌 치우친 막힘은 공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약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니 강자가 자행하는 교만한 습관을 조성하는데는 공법의 한 조목도 세우지 않았다.”(受貢國이 然則諸國을 向하야 同等의 禮度를 행하고 贈貢國을 對하야 獨尊한 體貌를 擅하리니 此난 贈貢國 體制가 受貢國及 諸他國을 向하야 前後의 兩截이오 受貢國의 體制도 贈貢國及 諸他國을 對하야 亦前後의 兩截이라 受貢國及 贈貢國의 兩截體制를 一視함은 何故오 形勢의 強弱은 不顧하고 權利의 有無를 只管하나니 強國의 妄尊은 公法의 譏刺가 自在하고 弱國의 受侮난 公法의 保護가 是存한지라 然한故로 如是不一한 偏滯 公法의 不行으로 弱者의 自保하난 道니 强者의 恣行하난 驕習을 助成하기 爲하야난 公法의 一條도 不設함이라.)

- ※속국자주/속국종속/조공독립/자주독립

군민공치론(君民共治論)

-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1887-1889 집필/1895 출판)
제5편 「정부의 종류」

1. 군주천단(擅斷)정체 2. 군주명령정체/압제정체 3. 귀족주장정체
4. 군민공치정체/입헌정체 5. 국민공화정체/합당정체

夫 君民이 共治하는 政體는 그 制度가 公平하고 些少도 私情이 無하여 民의 好하는 者를 好하며 惡하는 者를 惡하여 國中의 政令과 法律을 輿衆의 公論으로 行하나니 (중략) 政府의 一定한 制度는 人君과 百姓이 同守하여 敢히 是를 犯함이 無하고 良法과 美制를 新定한 則 亦 君民이 公遵하는 故로 暴君과 奸臣이 相遇하여도 其 虐政과 苛法을 恣行하기 不能한지라. 然 하기 人民은 各 其業에 安하며 事를 勉하여 一家의 榮華를 營求할 뿐 아니라 國人이 各 其國의 重함으로 自任하여 進取하는 氣像과 獨立하는 精神으로 政府와 心を 同하며 力を 協하여 其國의 富強할 機會를 圖謀하며 文明할 規模를 講究하니

21세기 아태신문명 재건축과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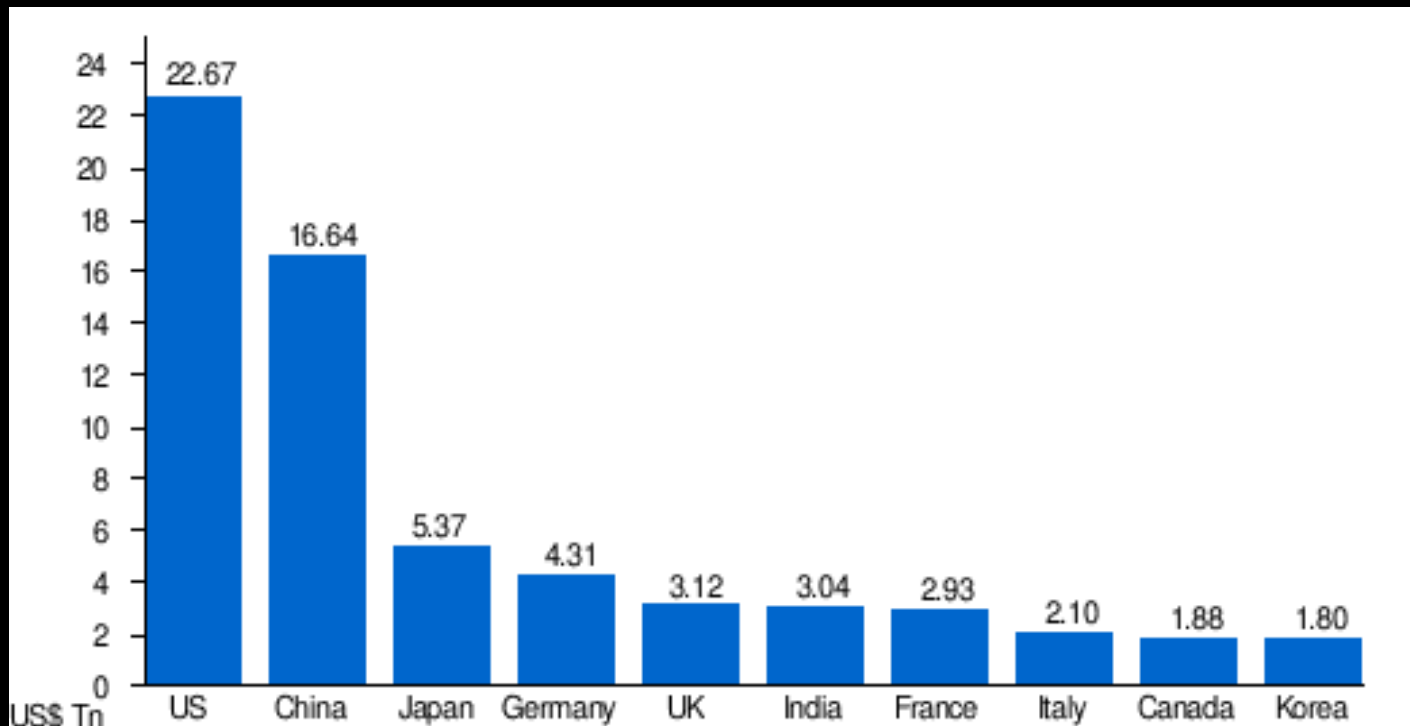


하영선
서울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E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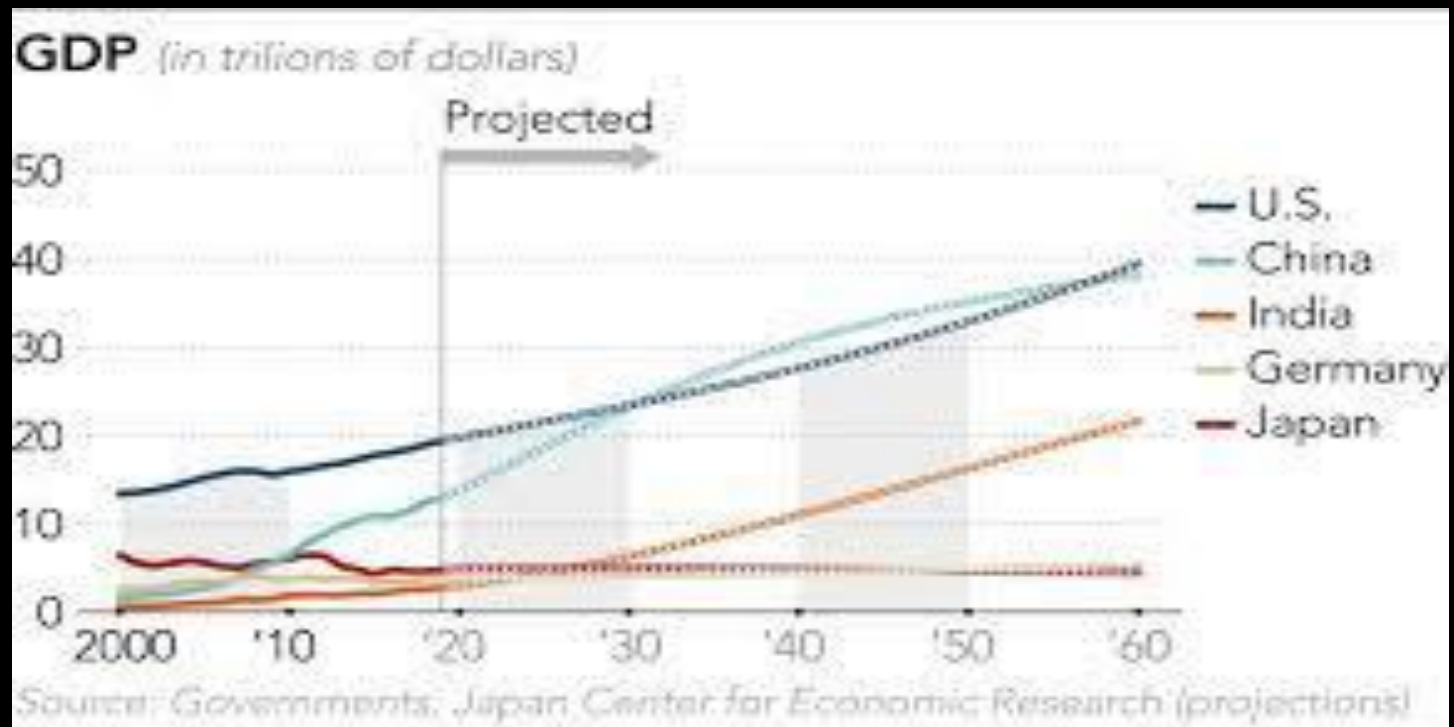


21세기 아태질서 형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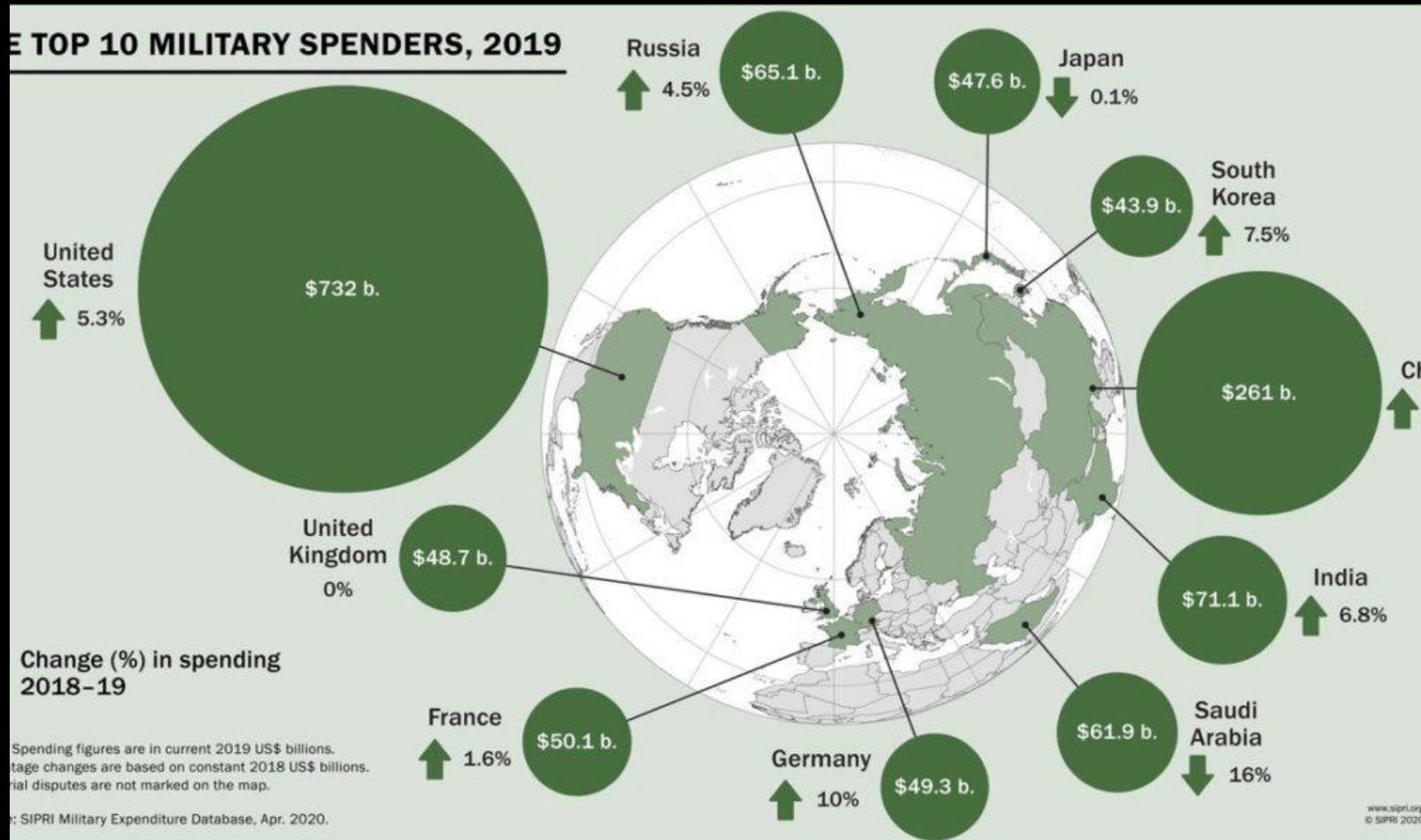
Global GDP 2021



Global GDP 2000-2060



The Top 10 Military Spenders, 2019



세계20대 싱크탱크 2018

- Top Think Tanks Worldwide (U.S. and non-U.S.)
 - 1. Brookings Institution (United States)
 - 2. Chatham House (United Kingdom)
 - 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nited States)
 - 4.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United States)
 - 5. Bruegel (Belgium)
 - 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United States)
 - 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United Kingdom)
 - 8. RAND Corporation (United States)
 - 9.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United States)
 - 10. Amnesty International (AI) (United Kingdom)
 - 11. Cato Institute (United States)
 - 12. Heritage Foundation (United States)
 - 13. Fundacao Getulio Vargas (FGV) (Brazil)
 - 14.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Germany)
 - 15.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Japan)
 - 16.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France)
 - 17. Fraser Institute (Canada)
 - 18.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Germany)
 - 19.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 (United States)
 - 2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United States)



아태문명의 역사적 변환

1. 천하질서

1.1 원형기: 先秦

1.2 형성기: 秦/漢-隋/唐

1.3 변환기: 北宋/南宋 : 遼/金/元

1.4 전개기: 明/清

2. 국제질서

2.1 형성기: 천하질서와 국제질서의 만남

2.2 전개기: '동아신질서'의 신화와 현실

3. 냉전질서

3.1 형성기: 냉전질서의 형성과 한국전쟁

3.2 완화기: 미중 데탕트와 7.4공동성명의 좌절

4. 복합질서

4.1 형성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4.2 전개기: 아태 신질서 재건축

	주 인 공	무 대	연 기	제 도
전 통	천하국가	예(禮)	사대자소 [事大字小]	책봉조공
근 대	국민국가	부국강병	자강균세 [自強均勢]	상주외교관 조약체계
복 합	그물망국 가	공치 부/강/문화/생태 지식	경쟁공진 [競爭共進]	그물망외교

Long Cycles of Global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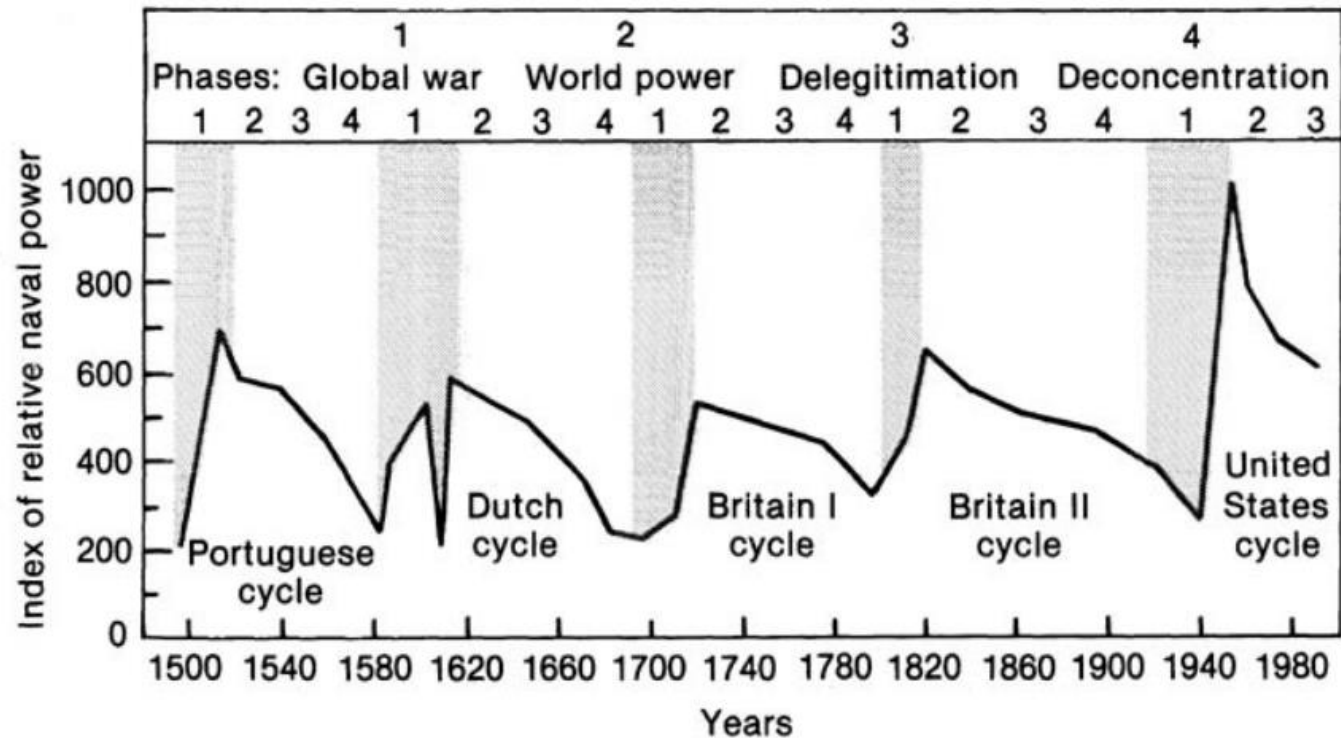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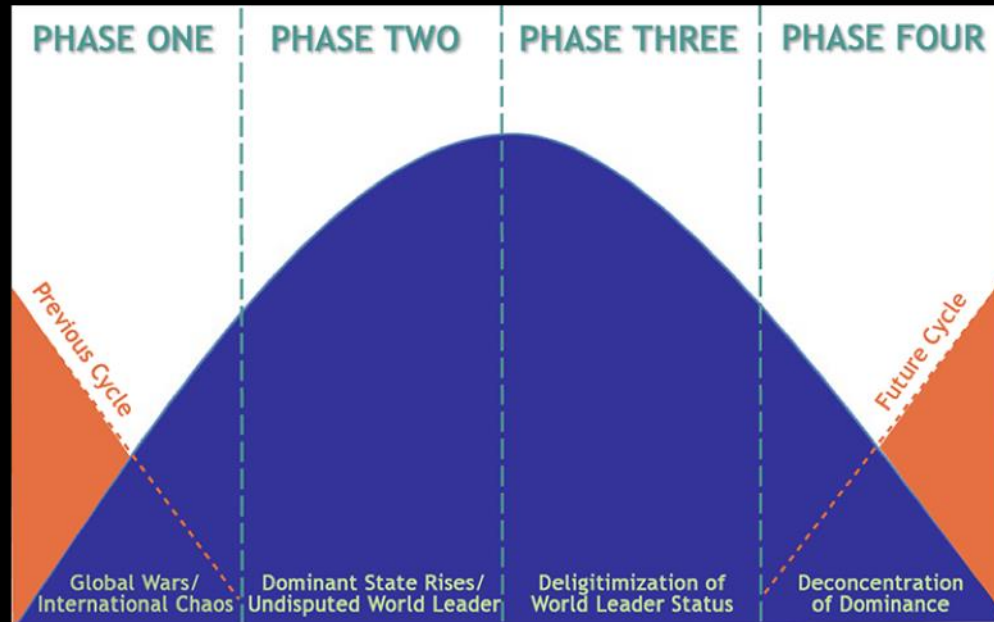


Figure 3-2 Modelski's long cycles of global power. *Source:* Berry, 1991, p. 160. Reprinted with permission of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 Phases of Long Cycle



21세기 복합국가 재건축

주인공: 국가+초국가네트워크(지역/지구)+
하위국가네트워크(비정부조직/개인)

무대: {[(안보/번영)+문화/생태균형] ∈ 지식} ∈ 공치}

중앙무대Ⅰ : 안보/번영

중앙무대Ⅱ : 문화/생태

기층무대 : 기술-정보-지식

상층무대 : 공치(共治)

연기: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공동진화
(coevolution)= 공생(symbiosis)



아태 신문명 재건축: 미국과 중국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March 3, 2021

- Our world is at an inflection point. Global dynamics have shifted. New crises demand our attention. And in this moment of accelerating global challenges — from the pandemic to the climate crisis to nuclear prolifera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one thing is certain: we will only succeed in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and upholding our universal values by working in common cause with our closest allies and partners, and by renewing our own enduring sources of national strength.
- That begins with the revitalization of our most fundamental advantage: our democracy. I believe we are in the midst of an historic and fundamental debate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our world.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given all the challenges we face, autocracy is the best way forward. And there are those who understand that democracy is essential to meeting all the challenges of our changing world.

Final Report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rch 1, 2021

- This new era of competition promises to change the world we live in and how we live within it. We can either shape the change to come or be swept along by it. We now know that the uses of AI in all aspects of life will grow and the pace of innovation will continue to accelerate. We know adversaries are determined to turn AI capabilities against us. We know China is determined to surpass us in AI leadership. We know advances in AI build on themselves and confer significant firstmover advantages. Now we must act.The United States should invest what it takes to maintain its innovation leadership, to responsibly use AI to defend free people and free societies, and to advance the frontiers of scien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AI is going to reorganize the world. America must lead the charg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MARCH 12, 2021

1. We bring diverse perspectives and are united in a shared vision for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2. we commit to promoting a free, open rules-based order, rooted in international law to advance security and prosperity and counter threats to both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3. We pledge to respond to the economic and health impacts of COVID-19, combat climate change, and address shared challenges, including in cyber space, critical technologies, counterterrorism,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humanitarian-assistance and disaster-relief as well as maritime domains.
4. major issues
5. a vaccine expert working group /a critical- and emerging-technology working group/a climate working group

North Korea Policy Review

White House April 30,2021/ Press briefing

-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consult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t every step along the way.

中国国家主席胡锦涛在纪念党的十一届三中全会召开**30**周年大会上的讲话(2008.12.8)

第一次革命 辛亥革命 (1911) 第二次革命新民主主义革命和社会主义革命 (1949) 第三次革命 改革开放(1978)

“高水平的小康社会(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of a higher level)”
中国共产党成立 1 0 0 年(2021)

“富强民主文明和谐的社会主义现代化国家(a prosperous, strong, democratic, culturally advanced and harmonious modern socialist country) ” 新中国成立 1 0 0 年(2049)

외교

新型国际关系=新型大国关系+新型周边外交

新型大国关系: “不冲突、不对抗” “相互尊重” “合作共赢”

中美战略与经济对话(2006-)

新型周边外交: 周边外交工作座谈会(2013/10)

国家核心利益: 维护基本制度和国家安全/ 国家主权和领土完整 /
经济社会的持续稳定发展

경제

一带一路:丝绸之路经济带/21世纪海上丝绸之路 建设/AIIB(2013)

기술

中国制造2025 (2015)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

규범

周边外交理念: 四字箴言 亲, 诚, 惠, 容(2013/10)

周边命运共同体“亚洲的新未来, 邁向命運共同體” (2015/4)

안보

新型亚太安全伙伴关系(2018)

朝鲜半岛核问题

(最近更新时间：2020年9月/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 2017
- 针对半岛局势持续升级，陷入“制裁-核试-再制裁-再核试”怪圈，中方提出“双暂停”倡议和“双轨并进”思路，即朝鲜暂停核导活动和美韩暂停大规模联合军演，并行推进实现半岛无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进程，积极劝和促谈。针对半岛局势持续升级，陷入“制裁-核试-再制裁-再核试”怪圈，中方提出“双暂停”倡议和“双轨并进”思路，即朝鲜暂停核导活动和美韩暂停大规模联合军演，并行推进实现半岛无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进程，积极劝和促谈，维护半岛和平稳定，为政治解决半岛问题创造条件。，维护半岛和平稳定，为政治解决半岛问题创造条造件.件
- 2019
- 作为半岛近邻和半岛问题重要当事方，中方一贯坚持实现半岛无核化，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为此，中方按照“双暂停”和“双轨并进”思路，积极致力于劝和促谈，在领导人、外长、六方会谈团长等层面与各方保持密切沟通，持续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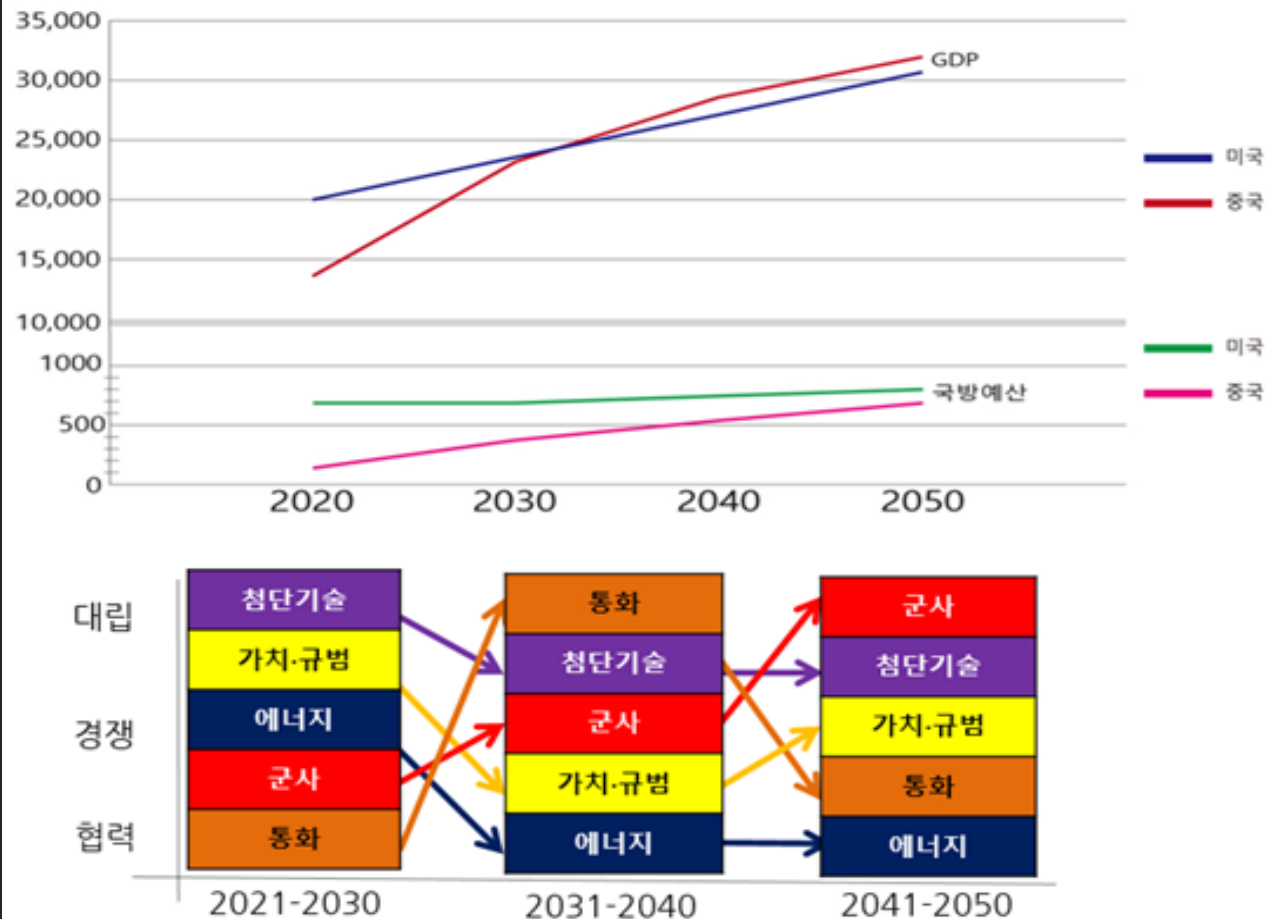
United States–China talks in Alaska

March 18–19. 2021

- US
-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China will be competitive where it should be, collaborative where it can be, and adversarial where it must be.”
- China
- The Chinese side has maintained a high degree of stability and continuity in its policy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committed to non-conflict, non-confrontation, mutual respect and win-w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 while firmly safeguarding it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경쟁 2050 ①단계별 확대와 타협의 모색
하영선.손열(202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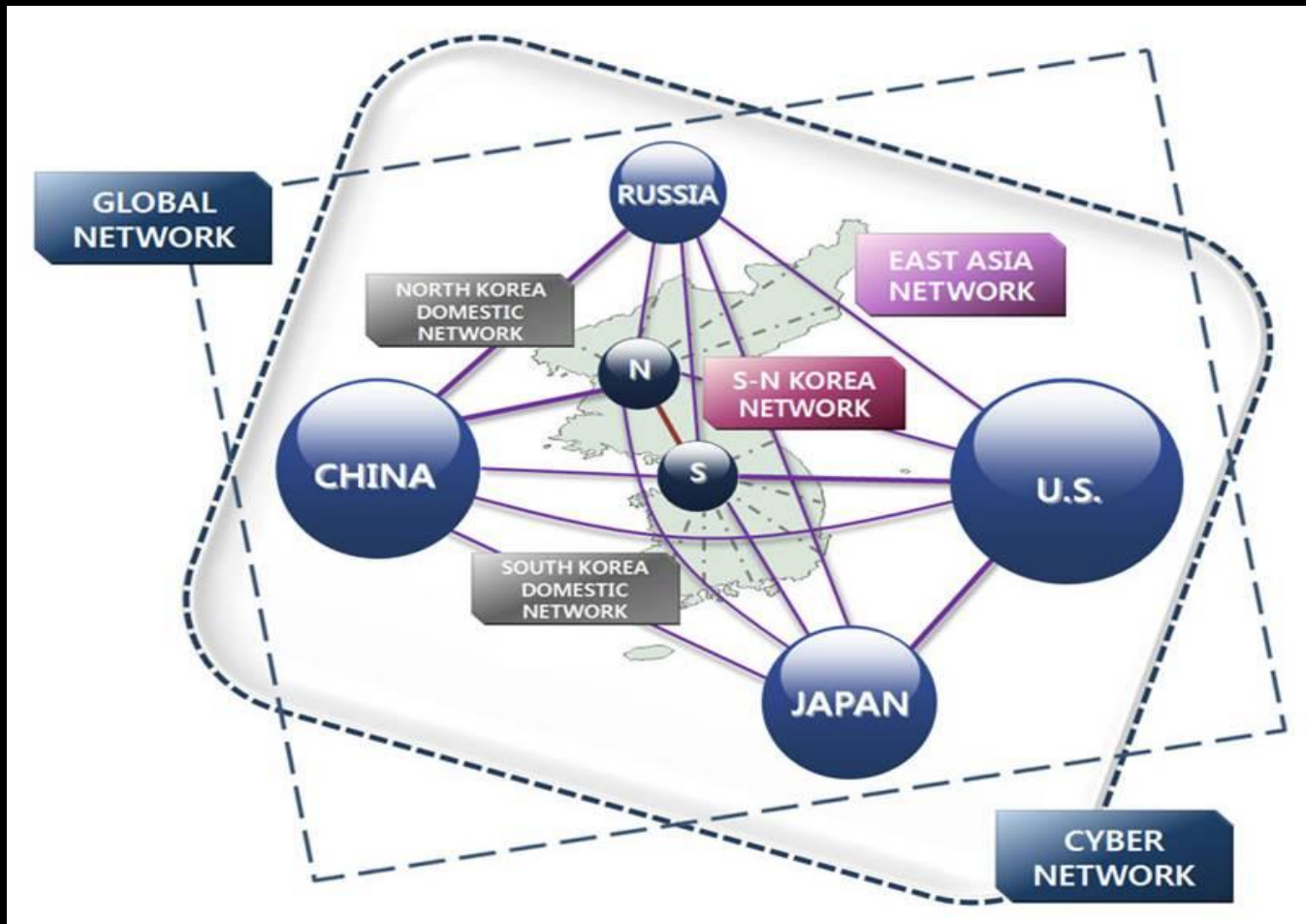
〈표 1〉 GDP/군사비 격차와 경쟁 국면의 변화





21세기 한국의 그물망매력국가

5중 그물망국가 짜기



- 1. 아시아태평양
 - 한미일 그물망+한중그물망+인도태평양
- 2. 지구
 - 세계화/반세계화/재세계화
- 3. 한반도
 - 북한비핵화: 제재/억지/포용/국내변환
 - 근대 통일/ 네트워크 통일
- 4. 사이버 공간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립(2017.11) DNA(Data·Network·AI)를 3대 혁신 신산업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2019.12.17)
- 5. 국내
 - 냉전산업화세대/탈냉전민주화세대/ 복합디지털세대

무대의 복합화: 3층 복합 다보탑쌓기



$\{[(\text{안보/번영}) + \text{문화/생태균형}) \in \text{지식}] \in \text{공치}\}$

1. 중앙무대Ⅰ : 안보/번영
2. 기층무대 : 기술.정보.지식
3. 중앙무대Ⅱ : 문화/생태
4. 상층무대 : 공치(共治)

8천만 BTS의 복합연기

BTS Fake Love



BTS Microkosmos



사랑의 세계정치

이영주 역

한글출판사

사랑은 세계를
바꿔놓는다

한울

한국 외교사 바로보기

A New Perspective on the Diplomatic History of Korea

전통과 현대 Tradition and Modernity

이영주 역

한국 외교사 바로보기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외교사의 전통과 현대를 조망하고, 한국 외교사의 변천과 발전을 설명한다. 또한 한국 외교사의 특징과 역할을 분석하고, 한국 외교사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울